

#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11월 10일

교회력(다해), 전체 50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열한째 주일**

♣ 오늘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학 2:5).



여수 갈릴리교회(감리교) 정원에서 자라는 '연화바위술'이다.  
이름이 생소하다. 여수 갈릴리교회에 딸린 정원은 국립수목원에서 발간한  
<가보고 싶은 정원 100>에 선정되었다.  
<정원사의 사계>(김순현 목사 글 사진)에서 옮김.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흠 폐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4층 시청각실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물리학의 역사에는 입자와 파동의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양자물리학 개념에 따르면 만물의 근본은 파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그대로의 실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비밀입니다. 마지막에 그 비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1,2,4절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 만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의 의로움으로 해방되며, 그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죄에 굴복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인격과 실존과 운명 전체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인 방관자로 남거나/ 소외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거룩 거룩 거룩 하시다 온 - 우리의 주하 나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사죄 기도를 바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머물러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에 휩싸이지 못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오늘 우리는 교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룹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그런 세상의 횡포 앞에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힘에 편승할 기회를 찾으려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인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니, 크게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38장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 다 함께**

조계연

조계연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 깨우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학개 1: 15- 2: 9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145: 1-5, 17-21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드높으신 주하나님 존귀하신 우리임금 영원토록 귀한이름 기리오며 찬양하리  
-평생토록 하루하루 주님이름 기리오리 다함없이 찬양하리 크고높은 주님이름  
어느자로 쟁수있나 무엇으로 헤아리랴 주하나님 높으시다 주님업적 크신도다  
-자자손손 전해지네 우리주님 크신업적 혁혁하신 그공적은 만대까지 알려지네  
크신명성 들었는가 광채찬란 아니한가 크신업적 보았는가 온천지에 퍼지리라  
-주하나님 가시는길 그언제나 바르시고 주님하신 모든일은 사랑가득 하시다네  
볼러보라 볼러보라 주님이름 볼러보라 진심으로 부를때에 어느틈에 오시었네  
-주하나님 경외하며 원하는것 아뢰오면 우리주님 일찌감치 구원선물 주시었네  
주하나님 사랑하면 굳게보호 받게되나 악인들은 불쌍하다 심판받아 망하리라  
-내입술아 찬양하라 온백성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님만을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2: 1-5, 13-17 ... 이유선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20: 27-38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찬송 주의 사랑 안에서 ... 샘터중창단

설교 두려워하지 말라! ... 정용섭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 다 함께

## 봉 헌 예 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어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 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성 찬 예 전

성찬찬송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2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으니,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 넝쿨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 성령임재의 기도 ... 집례자

###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3-25)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마 27:27-50),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눅 42:44-48),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행 1:9-11). 아멘.

###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막 14:22,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4,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 신앙고백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허락해주시지요.

###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회중은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

### 감사기도 ... 집례자

### 감사찬송 (시므온의 안식노래, 눅 2:28-32) 3번 반복 ... 다 함께



###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 \*마침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절 ... 다 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열한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책임이면서도 동시에 거룩한 권리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예배 후에 정용섭 목사와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교우들은 공동식사에 참여하셔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소: 대방동 약초마을)

\*다음 주일(11/17)은 추수감사절로 예배 후에 전 교우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12/8) 서울샘터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자격: 등록 교우(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제외함)

-집사 자격: 30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

지난주일 헌금 370,000원(주일헌금: 220,000원, 통장헌금: 5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2019/11/3)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11주 11/10	4층 시청각실	정용섭	이유선	오미영
창조절 12주 11/17	4층 시청각실	박재진	신창식	양혜선
창조절 13주 11/24	2층 세미나 2실	이춘우	채진진	이기령